

나주배원협 농산물유통센터 편법 운영 논란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받고 중매인에 임대... 개인창고 전락 선과장도 제기능 상실... 농식품부 "보조금 환수 조치 대상"

나주배원협이 수습역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중매인들의 개인저장고 등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배원협은 배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저온저장고와 선과장 등을 갖춘 유통센터를 건립했지만, 해당 시설물을 중매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재창고로 편법 운영하면서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나주배원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원금 9억원(국비 30%, 도비 9%, 시비 21%)과 자부담 6억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나주농산물공판장 내 부지 4905㎡, 건평 1962㎡(저온저장고 330㎡, 선과장 1132㎡, 사무실 500㎡) 규모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다.

산지유통종합시설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이다.

이상계 나주배원협농협조합장은 당시 준공식에서 "어떻게 파느냐가 농가수익을 좌우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농산물공판장내에 건립됐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배를 공동선별 후 곧바로 공판장에 출하해 신선도와 유통비용 절감 등 판매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물류개선 개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지만, 물류개선 개혁은커녕 중매인들의 개인창고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나주배원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는 선과장에서 분류한 과일의 물량을 수급조절하고 저온상태로 신선하게 유통하는 '쿨드체인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중매인들의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출하가 한창인 나주배 농가들의 배를 선별해야하는 선과장도 선과라인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소규모 공판장과 자재창고로 전락했다.

특히 배원협측은 중매들로부터 전기요금 등을 받고 저온저장고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판장용 및 자재창고로 사용 중인 선과장도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탓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배원협측은 또 유통센터 내 사무공간도 조합장실과 금융창고만 운영하는 등 배농가의 유통망 강화를 위한 시설운영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나주배원협 농산물유통센터 내 선과장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선과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자재창고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나주시 관계자는 "임대 장사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원협 관계자는 "선과장은 원협에서 선별하는 것보다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이 제품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창고도 배농가와 관련된 일이 고 유통에 관한 업무를 보는 창구도 있다"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강인규 나주시장이 덴마크 현지에서 나주배를 홍보하고 있다.

아삭한 나주배, 덴마크 입맛 사로잡다

강인규 시장 현지 판촉활동 헤더슬레브시와 교류 조인식

강인규 나주시장이 이끌고 있는 나주배 수출·판로 개척단이 덴마크 현지에서 활발한 마케팅 외교를 펼치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지난 13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를 방문하고 있는 나주배 수출·판로 개척단은 나주배 판촉활동과 함께 헤더슬레브시와 우호교류 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나주배 수출·판로 개척단은 지난 13일 현지에 도착 후 농축산업 선진시설 시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개척단은 특히 코펜하겐과 유들란드 반도에서 한국의 날 주간(Korea Week)에 열리고 있는 '한국 농식품 시식·판매전'과 '한국, 베우토프트(Bevtoft)에 오다' 행사에 참석해 나주배 홍보활동을 했다.

강 시장은 코펜하겐 최대의 음식마켓인 토브할렌 KBH에서 열린 한국 농식품 시식·판매전에서 "나주배는 한국의 대표적 과일로,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라면서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과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덴마크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헤더슬레브시는 덴마크 유들란드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 5만6000여명의 도시로, 식품과 금속기계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배의 덴마크 수출을 교두보로 유럽(EU)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나주배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와 대만, 홍콩, 일본 등 아시아와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 유럽 수출 실적은 없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 전남 첫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올 겨울 목문화관 광장에 조성

나주시가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겨울철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올 겨울 금계동 목문화관 앞 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 운영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며, 전체규모 2700㎡ 가운데 아이스링크는 1800㎡(30mX60m)로 최대 500명까지 동시 입장 가능하다. 입장료

는 무료이며, 스케이트와 헬멧 등 장비 대여료는 1시간 기준 1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야외스케이트장은 대도시에 비해 겨울철 놀이시설이 없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야외스케이트장 주변은 목사내아, 금성관, 나주향교 등 천년 목사고을의 역사성이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곰탕거리도 인접해 있는 등 볼거리와 먹거리도 풍부하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올 겨울 스케이트장으로 쓰일 금계동 목문화관 앞 광장.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주택·상가 235동 집중 육성 보조금 최대 6500만원 지원

나주시 과원동 일대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주택과 상업시설 등 235동이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한옥마을로 집중 육성된다.

나주시는 19일 "읍성권 내 전통가옥의 집단화로 천년고도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과원동 일대 읍성권 9만8224㎡를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전통주거용지 162필지, 전통상업용지 73필지의 건축구조를 한옥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신축을 위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 '나주시 한옥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 보조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한옥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 보조금 1500만원과 융자(연이율 1%)를 1억3500만원까지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에 신청한 기존 마을 개선형 한옥신축 235동(주택 162동, 상업시설 73동)에 대해 전남도 한옥심의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면서 한옥단지 육성 확정과 함께 주민들의 한옥건축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162동과 상업시설 73동은 한옥으로 개축할 경우 나주시 5000만원과 전남도 15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받고, 1억3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모두 2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만이 갖는 독특한 입지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성을 살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 체험,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서울의 북촌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한옥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미 확정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을 통해 한옥마을 내 주차장과 공원 등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중국 남창시 대표단 방문...나주 배농업 벤치마킹



중국 강서성 남창시 대표단이 최근 나주시청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강서성 남창시 대표단 일행이 배농업관련 나주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주시를 방문했다.

나주시는 19일 "중국 강서성 남창시 대표단 일행이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도시간 친선교류 강화와 배농업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나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남창시 대표단 일행은 지난 14일 나

주시 농업 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APC)과 한국전염염색박물관 및 다시복합리교본전시관을 견학하고 황포돛배 승선체험과 빛가람 전시장에 둘러봤다. 강서성 성도인 남창시는 인구 500여만명이 거주하는 역사도시로, 나주시와는 지난 2007년 5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우호친선 및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황금맷돌

2016 International CES LAS VEGAS, January 6-9 (미국 2016 CES 출품)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상/담/문/의 (062)515-1144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이스카짓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5부 이상 물로 가열해도 불이 시뒀고 먼저 불어가지 않는 일회용방수성 텍스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 찬 엔디나외의 클래식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